

블랑팡, 컴플리트 캘린더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다

올해 블랑팡이 문페이스를 갖춘 38mm 사이즈의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Villeret Complete Calendar)에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빌레레 컬렉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컴플리케이션의 조합은 거의 40 년간 블랑팡의 시그너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 일, 요일을 표시하는 컴플리트 캘린더는 블랑팡의 대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그것이 지닌 실용성뿐 아니라 디자인과 구조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는다. 12 시 방향에 위치한 두개의 창에서 요일과 월을 보여주는 한편 블랑팡이 즐겨 사용하는 구불구불한 세르펜틴 형태의 바늘로 날짜를 표시한다. 이 디자인은 독특한 디자인의 바늘로 시계 위 부가적 정보를 표시하던 18 세기 워치메이킹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 블랑팡의 컴플리트 캘린더는 주로 문페이스와 결합한다. 하늘 위 별의 주기를 보여주는 이 컴플리케이션은 1983 년 블랑팡에 의해 워치메이킹 전면에 등장하며 부각되었다.

새로운 38mm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모델은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빌레레 컬렉션의 현대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섬세하게 다듬은 가느다란 아워마커와 컷아웃 디테일의 세이지 잎 형태 바늘을 다이얼 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페이스 또한 새롭게 디자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학적 코드 덕분에 가독성은 물론 빌레레 아이덴티티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타임피스의 순수한 스타일이 더욱 극대화된다.

새로운 모델의 케이스는 섬세한 더블-스텝 베젤과 매끈한 옆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한 미들 케이스에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조화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측면 커랙터가 자리하고 있다. 시계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에서는 셀프와인딩 6763 칼리버의 탁월한 피니싱을 확인할 수 있다. 온전히 블랑팡의 인하우스 매뉴팩처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한 이 무브먼트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있으며, 4 일 파워리저브 가능하다.

새로운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는 화이트 다이얼의 스틸 버전과 오팔린 다이얼의 레드 골드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각 모델의 아워마커는 모두 골드 소재이며, 바늘은 케이스의 컬러와 동일하다.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으로도 선보인다. 또한 악어가죽 스트랩과 *밀 마이유(Mille Mailles)*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특히 밀 마이유 브레이슬릿은 숙련된 장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조립한 500 개 부품으로 완성된다.